

1920-1930년대 조선 기독교사회주의 연구

강종권*

- I. 들어가는 말
- II. 기독교사회주의에 대한 이해
- III. 조선 기독교사회주의 발생의 배경
- IV. 조선 기독교사회주의의 형성
- V. 조선 기독교사회주의의 활동
- VI. 나가는 말

I. 들어가는 말

120년의 짧은 역사를 가진 한국기독교가 성장한 것은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후 생성된 여러 가지 사회변동의 원인과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¹⁾ 그렇다면 성장 이전에 한국기독교는 무엇을 하였을까?

* 숭실대학교 대학원 기독교학과 박사과정 수료

1) 김병서는 한국교회의 폭발적 성장은 근대화의 물결을 타고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다. 그 근대화의 시점을 경제개발계획을 시작한 1961년으로 보는데, 근대성이 모든 제도적 생활 영역에 영향을 주었고 특히 경제생활, 교육제도, 종교생활, 가정까지 속속들이 배여 들었다는 것이다. 특히 관주도형으로 시작된 불안한 경제주의 정책으로 인한 빈부의 격차 심화, 자유와 평등의 저해, 영세 이농민의 도시 집중화 등으로 인한 한국사회의 불안정 등이 국민의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었고, 삶의 방향 감각을 잃게 하여 그 불안 해결과 안정된 삶을 찾아서 대거 교회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다고 본다. 김병서, 『한국사회와 기독교』(서울: 한울아카데미, 1995), 21-30;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교회 100년 종합조사연구』, 1982년, 140-141을 참조하라.

거저 인구 비례적으로 얼마 되지 않는 신도들²⁾을 간수하고, 궁핍한 살림을 일으키기 위해 허리띠 졸라매며 아끼고 절약하여 오늘날과 같은 성장과 부를 이루었을까? 그것은 분명히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기독교의 성장배경은 과연 무엇일까? 필자는 그것이 초기 한국기독교의 사회적인 공헌도에 있다고 본다. 특히 일제강점시기 조선 기독교는 민족의 혼을 일깨우고, 희망을 잃어버린 겨레에게 희망을 불어 넣기에 충분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것도 스스로 ‘기독교사회주의’를 지향했던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그 역할을 감당했었다고 본다.

본 논문의 목적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외면당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위기성을 깨닫고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이다. 더구나 한국기독교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타종교와의 연대까지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진단까지 나오고 있는,³⁾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도구로 역사를 선택하였다. 왜냐하면 역사란 현재를 반성할 수 있는 훌륭한 거울이 되기 때문이다. 그중에 조선 말기에 기독교가 선교되는 과정에서 기독교가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감당했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특히 3·1운동 이후 일제의 기만적인 문화정책에 따른 급격한 사회변동과 이에 대응하는 기독교가 어떻게 사회변동의 급물살을 타면서 ‘기독교사회주의회’ 되어갔는지를 연구해 보려고 한다.

이 연구를 위해 박정신의 *Protestantism and Politics in Korea*⁴⁾와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에서 펴낸 『일제하 한국 기독교와 사회주의』라는 논문선집⁵⁾과 노치준의 박사학위 논문을 묶은 『일제하 한국기독교 민족운동』⁶⁾

2) 마삼락 박사에 의해 수집된 통계에 의하면 선교초기 한국기독교인의 수는 1890년 17,577명, 한일합방이 되던 1910년에는 73,517명, 3·1운동이 일어난 후인 1920년에는 90,000명이었고, 일제 막바지인 1940년에는 372,000명, 한국전쟁 시기인 1950년에는 600,000명에 불과하였다. 『한국교회 100년 종합조사연구』, 144를 참조하라.

3) 정강길, 「전환기의 한국기독교, 바뀌어야 산다」(6), 『뉴스 앤 조이』, 2005년 2월 24일자.

4) Chung Shin, Park, *Protestantism and Politics in Korea*(Seattle and London: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2003).

을 많이 의지하였다. 이 연구들의 업적은 이 분야를 연구하려는 학도들에게 교과서적인 길잡이가 되어줄 정도로 친절하다. 특히 박정신의 논문은 역사적 사실들을 유추하고 설명하는 역사학의 새로운 지평을 제공한 연구로서 연구자에게 매우 유익한 자료가 되었음을 밝혀 두는 바이다.

II. 기독교사회주의에 대한 이해

1. 사회변동과 기독교사회주의

기독교사회주의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론적 근거는 사회변동에서 찾을 수 있다. 사회변동이란 사회구조와 사회관계성의 변화를 의미한다.⁷⁾ 그러나 사회변동은 모든 사회에서 모든 시기에 똑같은 형태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물리적 환경, 인구변화, 고립과 접촉, 사회문화구조, 태도와 가치, 변화에의 요구, 문화적 기초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⁸⁾ 또한 사회변동에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⁹⁾ 사회변동은 가치를 파괴함으로써 현존하는 문화에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고, 발견이나 발명의 영향으로 사회나 개인이 해체되어 통제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문화지체로 인해 역할갈등이 생겨날 수도 있고, 불확실성에 따른 긴장이 심화될 수도 있으며, 인구학적, 생태학적, 사회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사회변동에 따른 많은 문제들에 대하여 종교가 어떤 특별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5) 김홍수 엮음, 『일제하 한국기독교와 사회주의』(서울: 한국기독교 역사연구소, 1992).

6) 노치준, 『일제하 한국기독교 민족운동연구』(서울: 한국기독교 역사연구소, 1995).

7) 양춘 외, 『사회학개론』(서울: 진성사, 1986), 410-418.

8) Paul B. Horton & Chester L. Hunt, *Sociology* (New York: McGraw-Hill, 1984), 518-523.

9) 윗글, 527-536.

기독교사회주의를 이해하고 그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은 고무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2. 개변론적 변혁의 실천인 기독교사회주의

개변론적 변혁(conversional reform)¹⁰⁾은 사회변동에 의해 생성된 기독교사회주의를 이해하는 중요한 단초가 된다. 리처드 니버는 종교로서 기독교가 사회변동에 어떤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그의 저서 『그리스도와 문화』¹¹⁾에서 ‘문화에 대립하는 그리스도’(Christ against Culture), ‘문화의 그리스도’(The Christ of Culture), ‘문화 위의 그리스도’(Christ above Culture), ‘문화와 그리스도의 역설적인 관계’(Christ and Culture in Paradox), ‘문화의 변혁자 그리스도’(Christ the Transformer of Culture)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 중에 마지막 유형인 ‘문화의 변혁자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기독교사회주의 이론 형성의 중요한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여기서 니버는 어떤 유형보다도 더 적극적이고 희망적인 개변주의에 대하여 설명한다.¹²⁾ 즉 개변주의자들은 창조된 세계 안에서 일하는 피조물인 인간은 자기들의 믿음 없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헛된 사물 속에 살고 있다고 믿을지는 몰라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통치 밑에서 창조적 능력과 하나님 말씀의 질서화(ordering)에 의해 살고 있다고 본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의 결과인 부패는 개변의 대상이며,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행위와 이에 대한 인간의 응답하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끊임없이 변혁되어

10) ‘변환’, ‘전환’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 ‘conversion’을 김재준은 ‘개변’이라는 단어로 번역하였다. H. Richard Niebuhr, 『그리스도와 문화』, 金在俊 譯 (서울: 大韓基督教書會, 1977), 6장을 보라.

11) H. Richard Niebuhr, *Christ and Culture* (New York: Harper & Brothers, 1956).

12) 윗글, 191-196.

가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사회주의를 가능케 한 개변론적 변혁이다. 이런 의미에서 모오리스(Frederick Denison Maurice)¹³⁾는 ‘비사회적인 기독교인’(unsocial Christians)과 충돌하고 ‘비기독교적인 사회주의자’(unchristian socialists)들과 충돌하며¹⁴⁾ 개변론적인 변혁에 입각한 검비와 봉사를 통한 문화의 변혁¹⁵⁾을 주장하면서 기독교사회주의를 형성해 나갔다.¹⁶⁾

Ⅲ. 조선 기독교사회주의 발생의 배경

1. 19세기 후반 조선사회의 변동과 기독교

19세기 후반 조선을 지탱해온 유교가 정치·사회 현실에 있어서 지도적 이념의 구실을 다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조선의 봉건적인 사회질서에 대한 천주교의 도전은 양반 지배사회의 말기적인 붕괴과정에서 허덕이는 조선인의 윤리관과 가치관을 혼돈 속으로 몰아넣었다.¹⁷⁾ 이러한 사회변혁은 유교 이외의 새로운 종교적 정당성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¹⁸⁾ 이

13) 기독교 역사 속에서 ‘기독교사회주의’라는 명확한 타이틀로 개혁을 시도한 것은 19세기 영국에서이다. 그 중심에는 영국 성공회 성직자 모오리스(F. D. Maurice)와 급진적 사회주의자 러드로우(J. M. F. Ludlow)와 유명한 설교가 킹슬리(Charles Kingsley)가 있었다. 이들 중에 모오리스는 기독교사회주의 탄생의 신학적 이론을 제공한 신학자이며 활동가이며 지도자였다. 기독교사회주의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Bernard M. G. Reardon, *From Coleridge to Gore*(London and New York: Longman, 1971); F. D. Maurice, *Reconstructing Christian Ethics*(Kentuc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5)를 참조하라.

14) Niebuhr, *윗글*, 222.

15) *윗글*, 226-227.

16)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사회변동은 단순한 사회변화를 시도하는 개혁이 아니라 기독교의 신앙에 기초한 회개를 동반한 ‘개변론적인 변혁’을 다루려고 한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사용하는 ‘개변론적 변혁’과 ‘개혁’은 동의어로 사용됨을 밝혀 둔다.

17) 韓國史敎材編纂委員會, 『韓國史大要』(서울: 淑明女子大學校出版部, 1984), 225.

와 같은 사회변동의 운동 세력으로 등장한 것이 동학과 기독교¹⁹⁾였다. 그러나 동학의 등장은 결과적으로 외세의 이권개입과 국가 경제를 도탄에 빠뜨려 오히려 더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켰지만, 기독교의 조심스런 등장과 사회활동은 가치 급변주의 변혁의 에너지로 작용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가치지향성이 지닌 힘이 온 사회에 구체적으로 전개되었다.²⁰⁾ 예를 들어 조선의 열악한 의료사정을 고려한 의료선교, 신분을 초월한 교육사업 그리고 일찌감치 개화한 조선인 기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한 문화·사회활동은 조선 사회가 아래로부터 변화되고 성숙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민중에게 신망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때 조선 기독교의 역할에 대하여 그리피스(W. E. Griffis)는 “조선 사람들의 가슴속에 기독교가 스며들자 그들은 민족을 생각하게 되었고, 자신과 이웃의 복리 증진을 시도하게 되었다”²¹⁾고 평가하였다. 특히 기독교는 1910년 한일 강제 병합 전후 노골적으로 드러난 일제의 야욕에 대하여 조직적으로 항거하고 민중계몽을 실천함으로써 가장 강력한 사회변동 세력으로 개혁을 시도해 나갔다. 그 결과 조선 기독교는 사회의 총아가 되었는데, 종교를 싫어했던 신채호(申采浩)도 개신교의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²²⁾ 1919년 3·1운동 이후 공산 계릴라 운동에 뛰어 들었던 김산(장지락) 역시 “개신교 공동체는 조선 독립의 모태(母胎)가 될 것이다”²³⁾라고 기대할 정도였다.

18) 박영신, 『역사와 사회변동』(서울: 한국사회학연구소, 1995), 275.

19) ‘기독교’라는 개념은 로마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의 통칭적인 개념이지만 이 글에서는 구분을 위해 로마 가톨릭은 ‘천주교’로 프로테스탄트는 ‘기독교’ 또는 ‘개신교’라고 표현함을 밝혀 둔다.

20) 박영신, 「기독교와 사회발전」, 『기독교사상』, 1984년 5월호, 149-150.

21) W. E. Griffis, 『은자의 나라 한국』, 신복룡 역(서울: 탐구당, 1976), 582.

22) 신채호가 1910년 2월 22일~1910년 3월 3일까지 『大韓每日申報』는설란에 8차례 연재했던 글이다. 신채호, 「二十世紀 新國民」, 『단재 신채호 전집』 6권, (천안: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8), 467.

23) Nym Wales and Kim San, 『아리랑』, 조우화 역(서울: 동녘, 2002), 60.

2. 일제의 수탈과 조선 기독교

1905년 11월 17일 일본군을 동원하여 왕궁을 포위한 가운데 이완용, 이근택, 권중현, 박제순, 이지용 등 ‘을사오적’을 앞세워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이른바 ‘을사조약’을 강제로 맺어 조선을 ‘보호국’으로 만든 일제는 조선에 통감부를 설치하고 조선 사회를 식민지사회로 재편해 나가는 과정에서 조선을 지배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조선에서 마련하였다. 먼저 1905년에 시작하여 1909년에 끝난 ‘화폐정리사업’은 많은 조선인의 재산을 잃게 하였고 그 만큼의 재산이 일제의 손에 들어가게 하였다. 또 ‘재정정리사업’을 추진하여 세금부과대상을 늘려갔으며, 1906년에는 호구조사를 실시하여 세금을 받아낼 수 있는 호수를 두 배로 늘렸는데, 갖가지 명목의 세금을 거둔 결과 1910년의 재정규모는 1906년의 세 배에 달하였다. 그리고 ‘황무지개간에 관한 규정(1906년)’, ‘국유미간지 이용법(1907년)’ 등 약법을 만들어 토지를 빼앗았고, 1908년에는 왕실 소유인 역둔토, 궁방전까지 빼앗아 동양척식주식회사와 여러 식민회사에게 나누어 주어 관리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호남을 비롯한 주요 농업지대에 일본 농민을 이주시켜 조선 농민을 수탈하는 첩병으로 내세웠다. 또한 철도, 항만,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을 늘여 대륙침략의 통로를 확보하였고, 한편으로는 수탈한 물자들을 빠르고 손쉽게 일본으로 가져가려는 식민지적 운수체계를 수립하였으며, 일제의 원료 산업 진출과 막대한 자본은 조선의 수공업을 몰락시키고, 전반적인 민족경제를 몰락시켰다. 이런 과정에서 민중의 저항은 여러 모양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에 기독교인들은 폭력이 가능한 사회 변동기에 비폭력으로 저항하며 사회정의운동을 펼쳐나갔다. 토지수탈 정황을 문서화해서 세계의 양심에 공람시켰고,²⁴⁾ 언론을 통하여 일제의 잔학성을 공개하겠다고 성명을 발표할 정도로²⁵⁾ 개혁적인 신앙과 애국의

24) 朴殷植, 『韓國痛史』(권업동맹단, 1917), 253.

사회표현을 하였다. 때로는 강제 노동 동원의 불법에 저항하여 촌민들의 결속을 수행하고, 임금이 정당하게 지불되지 아니하는 한 노동을 거절하게 함으로써, 합법적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게 하였다.²⁶⁾ 이러한 기독교의 개혁적 활동에 대하여 대한매일신보는 “現今 大韓國 中에 야소교 신도가 수십만에 달하였는데 箇個히 一死字로 自誓하여 國家의 獨立을 不失하기로 上天에 기도하고 同胞에 권유하니 此는 大韓의 獨立根基라...”²⁷⁾고 평가 하였었다. 그 대표적인 항거로 1907년 대구에서 일어난 국채보상운동과 1910년 1월 평안남도 순천에서 일어난 시장세 거부 운동을 꼽을 수 있다. 국채보상운동은 1,300만원이 넘는 국채를 상환할 목적으로 단연(斷煙) 구국 운동을 일으킨 것인데, 3·1운동 이전에 있었던 개혁적 기독교 활동의 기념비적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고, 순천의 항거를 두고 평안도의 일제 경찰부장은 “기독교인들이 상의상조(相依相助)하고 폭동을 감행한 것”²⁸⁾이라고 분석하였으며, 『韓國獨立運動史』도 이 투쟁을 기독교의 영향 밑에서 진행된 배일(排日) 항거로 보고 있다.²⁹⁾

3. 3·1운동 좌절과 반개혁적 기독교

3·1운동은 일제의 각종 수탈과 착취로부터 조선인의 인권과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개혁을 시도하고 저항했던 민족운동이었다. 그래서 3·1운동은 처음 조직 단계부터 어느 한 종교나 한 계통에서 단독으로 준비한 것이 아니라, 독립을 추구하는 여러 독립운동 세력 집단에서 거의 동시에 그 기획이 태동되어 하나로 합류되어 이루어진 운동이었다³⁰⁾고 할 수는

25) Editorial Comment, *The Korea Review*, Vol. 6(1906), July, 271.

26) The Japanese in the North, *The Korea Review*, Vol. 6(1906), August, 290.

27) 『論說』, 『大韓每日申報』, 1905년 12월 1일자.

28) 『韓國獨立運動史』(1권), 國史編纂委員會, 1968, 513.

29) 윗글, 510-514.

30) 신용하, 「3·1 독립운동 발발의 경위」, 『일제강점기하의 사회와 사상』(서울: 신원문화사.

있지만 그 중심적인 활동가들이 기독교인들이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도 그럴 것이 일제강점하의 민중들에게 기독교는 조선독립의 최후 보루로 여겨지고 있었기 때문이었고,³¹⁾ 일제의 강점이 시작하면서부터 기독교인들이 ‘종교의 이름으로’ 민족독립운동을 펼쳤듯이³²⁾ 3·1운동 때에도 종교의 이름, 즉 기독교의 이름으로 그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하였기 때문이었다.³³⁾ 이것이 바로 개혁적 사회변혁을 기대하던 조선 기독교의 역동적인 힘이었다.

3·1운동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극심했다. 특히 기독교는 함께 참여했던 어느 종교들보다 극심한 핍박과 피해를 입었다.³⁴⁾ 그러나 3·1운동이 좌절된 후 기독교의 이름으로 개혁적 사회변혁을 꿈꾸었던 수많은 민족주의자들이 기독교의 틀을 벗어나서 새로운 민족 운동의 틀을 찾아 떠나갔다. 일제의 정책변화³⁵⁾로 더 이상 기독교를 거점으로 한 민족운동이 불필요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기독교내에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성서를 중심으로 출애굽의 탈출과 같은 독립과 바빌로니아 포로를 청산하는 것 같은 해방을 소망하며 민족의식, 독립의식을 고취하던 기독교가 더 이상 일어나기를 포기하고, 기독교의 ‘순수종교화’ ‘비정치화’ 작업에 몰두하면서 민족공동체의 문제에 등을 돌리기 시작하였다.³⁶⁾ 더 이

1991), 13-15.

31) 각주 20)-26)을 보라.

32) 박정신, 「1920년대 개신교 지도층과 민족주의운동」, 윗글, 71.

33) Chung Shin Park, 129-139를 보라.

34) 3·1운동에 적극 참여했다가 수감된 입감자의 종교별 구성을 보면 기독교가 21.89%(장로교 15.91%, 감리교 4.8%, 구세군 0.11%, 기타교파 1.04%)로 천도교 15.05%, 불교 1.17%, 유교 0.61%, 천주교 0.59% 보다 적극적인 탄압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신용하, 윗글, 87.

35) 3·1운동 이후 일제는 무단 통치에서 문화정치로 정책을 급선회하였다. 무단통치 때는 종교 활동 외의 집회와 결사, 언론과 문화와 사상의 자유와 활동을 허용하지 않았었지만, 3·1운동 이후의 정책 변화는 부분적으로 그 모든 것들이 허용되어 개혁가들로 하여금 기독교를 떠나 새로운 독립운동의 근기를 찾아 나서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36) 개신교의 인물들이 모두 민족문제에 등을 돌린 것은 아니다. 전도사였던 여운형, YMCA 간사였던 박희도, YMCA의 이대위 등은 새로운 민족운동의 방략을 찾고 있었으며, 김규식

상 현세를 탐닉하지 않고 내세를 부르짖는 신비주의 운동이 기독교 안에 일어났고,³⁷⁾ 이 땅에 개신교가 선교되면서 시작되었던 개혁적 사회변혁 운동이 반개혁적 기독교로 급선회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로 인하여 3·1 운동 이후 조선의 기독교는 조선 사회의 비난의 표적이 되어 선교 후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되었는데, 일제 강점 이후 기독교를 가리켜 “조선 독립의 모태”로 예견했던 김산(장지락)과 긍정적으로 보았던 신채호도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혹독하게 비판하기 시작했다.³⁸⁾ 특히 사회주의자들의 조직적인 반기독교운동에 직면한 기독교는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절대로 필요하였다. 그대로 공격당하고 있으면 도태되기도 전에 해체되고 파산되거나, 아니면 민중들의 무관심 속에 이름뿐인 종교집단으로 전락할지도 모를 위기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IV. 조선 기독교사회주의의 형성

1. 사회주의의 기독교 비판

· 이승만·안창호 등은 교육과 외교를 통한 독립을 추구하고 있었다. [박정신, 윗글, 75-76.] 그러나 언론은 조선의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정신과 물질의 분리를 강조하면서 죽은 뒤의 천당만 생각게 하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한다고 비판하였다. [「朝鮮基督教의 覺醒을 促 하노라」, 『東亞日報』, 1923년 5월 19일자: 「時代錯誤의 見解를 克服하라」, 『東亞日報』, 1924년 4월 1일자.]

37) 이것은 3·1운동의 패배주의적 사회분위기가 만들어 낸 반사작용으로써 1920년대 초반의 암울한 민족현실을 극복하려는 방편이기는 했겠지만 이에 대한 사회의 분위기는 냉담했다. 특히 ‘이적’과 ‘신유’를 동반한 부흥회를 주도한 김익두 목사에 대해서는 더욱 심했다. 김명식은 김익두 목사의 부흥운동을 가리켜 ‘요언망행’(妖言妄行)으로 규정하고 ‘조선의 수치이며 망조라고 비난했다. 金明植, 「金益斗의 迷妄을 論하고 基督教徒의 覺醒을 促하노라」, 『新生活』, 1922년 6월호, 2-7을 보라.

38) Nym Wales and Kim San, 67-68; 박정신, 「1920년대 개신교 지도층과 민족주의운동」, 78-79.

조선 기독교의 태도변화와 사회주의 세력의 갑작스런 성장이 맞물려 기독교는 사회주의의 최대의 적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대체로 세 가지 큰 틀로 기독교를 비판하였다.

첫째로 사회주의자들은 마르크스주의 종교이론을 무비판적으로 적용하여 종교로서의 기독교를 비판하였다. 배성룡은 〈시엣후레〉라는 공산주의 이론가의 말을 인용하여 “教會는 資本主義社會를 支持함에 잇서 絶好한 警察機關”이기 때문에 현대의 종교와 인간의 해방과는 절대로 양립할 수 없으며 인간해방을 실현하려면 모든 기성종교는 폐멸(廢滅)해야만 한다고 하였다.³⁹⁾ 그리고 박헌영은 “宗教처럼 社會를 反映한 것은 업나니 곳 人間의 情神이 地上의 實物을 天上에 映寫한 것”이라고 하면서, “資本家階級の 大部分과 그를 좇는 知識階級은 宗教를 利用하여 勞働者를 服從케 한다... 故로... 이러한 勞働者는 結局 紳士閥級 宗教家에게 屈服되고 만다”⁴⁰⁾고 하였다.

둘째로 사회주의자들은 진정한 인간해방을 위하여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아편으로서의 기독교를 배척하였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하에서의 종교는 민중의 억압구조를 더욱 가중시키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⁴¹⁾ 특히 김익두의 ‘이적’과 ‘신유’, 선교사들의 친일과 인종주의적 태도와 교회 안의 비리 등 반개혁적 신앙이 사회주의자들의 눈에 아편처럼 여겨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셋째로 사회주의자들은 기독교의 타고난 보수적인 기질, 즉 ‘비정치화’와 ‘몰역사화’ 등이 사회주의 원리와 일치할 수 없음에 대하여 비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한위건은 “보라- 朝鮮의 예수敎人치고 保守的이 아닌 者가 그 누구인가? 舉皆는 極端의 個人主義者로 流血이라면 聖旨에 違反이라고 口實 조케 回避하는 자들뿐이니 이 엇지 역사적 使命을 다 하라

39) 裴成龍, 「反宗教 運動의 意義」, 『開闢』, 1925년 11월호, 58-59.

40) 朴憲永, 「歷史上으로 본 基督教의 內面」, 『開闢』, 1925년 11월호, 65-67.

41) 裴成龍, 未刊, 59.

는 吾人으로서 等閑視할 바이라!”⁴²⁾고 서슴없이 비판하였다. 이와 같은 사회주의자들의 비판이 일면 타당성이 이기는 하지만 지나친 사회주의적 폭력을 위한 그들의 노선이 그 정당성을 훼손해 버리고 말았다. 실제로 사회주의자들은 반기독교운동을 전개하면서 무수한 폭력을 동원하기도 하였다.⁴³⁾

2. 조선 기독교의 대응

사회주의자들의 반기독교적 공세에 대한 조선 기독교의 대응은 대체로 두 가지로 나타났다. 먼저 사회주의자들의 비판에 대해 철저히 냉소적인 태도를 보인 그룹이다. 이들은 교회 안의 교역자나 교회신앙운동을 펼치던 평신도들, 그리고 신학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는데, 반기독교 운동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한결 같이 그들의 무지에서 비롯되었다고 비판하면서 사회주의자들의 일방적인 기독교 이해만을 주장하였다. 『基督申報』의 한 사설에서는 기독교가 추구하는 방향과 사회주의가 추구하는 방향 사이에는 큰 유사점이 있지만 그 주체와 방법에는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였고⁴⁴⁾, 장성산은 「反基督教運動에 對하여」라는 글에서 기독교와 사회주의를 주의 깊게 분석하면서 결론적으로 사회주의자들에게 아홉 가지 제안을 하기도 하였다.⁴⁵⁾ 그리고 최석주는 평양에서 있었던 윤치호의 강연 내용을 인용하여 ‘종교의 아편적 역할’에 대한 교리적 타당성을 말하면서 오히려 기독교가 아편을 가지고 민중을 대한다면 그들은 양젓물을 가지고 민중을 대하는 것 이상일 것이라고 사회주의의 경

42) 韓偉建, 「等閑視할 수 없다」, 『開闢』, 1925년 11월호, 74.

43) 閔庚培, 『韓國基督教社會運動史 1885-1945』(서울: 大韓基督教出版社, 1987), 210-214을 참조하라.

44) 社說, 「反基督教運動을 보고」, 『基督申報』, 1926년 3월 24일자.

45) 張聖山, 「反基督教運動에 對하여」(九), 『基督申報』, 1928년 3월 28일자.

직된 교조주의를 비판하기도 했다.⁴⁶⁾ 이와 같은 기독교의 대응은 사상적 혼돈 속에서 기독교의 정체성의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지는 몰라도 끝까지 개혁의 역할을 포기한 반개혁 기독교적인 행위는 현대에 이르기까지 풀지 못하는 숙제로 남기게 되었다.

이들과 달리 사회주의자들의 비판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면서 개선방향을 찾던 그룹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YMCA와 YWCA 등과 같은 사회단체에서 사회운동이나 민족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던 개혁적 기독교인들이었다. 우선 이들은 우선 반기독교운동의 타당성을 수용하는 입장을 보이면서 “반기독교운동은 기독교의 폐해를 제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이를 통해 기독교인들은 신앙을 올바르게 가질 수 있다”⁴⁷⁾고 보았으며, “反基督教運動이 잇던 업던 오늘의 基督教은 變해야 한다... 現代의 基督教은 反省해야 한다”⁴⁸⁾고 하였다. 또한 이들은 사회주의를 사상적인 대적으로 생각하기 전에 유사성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 중에 이대위가 대표적인 인물인데 그는 “吾人이 不滿不平한 世界를 否認하고 吾人이 憧憬하는 無善 新世界를 造成코져함에는 基督教思想과 社會主義가 相同하다고 思惟한다”고 말하면서 기독교와 사회주의의 주요 목적을 비교하며 필설하고, 사회주의의 이상(理想)은 기독교이며,⁴⁹⁾ 사회주의 이해는 그 속에서 예수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앞으로 기독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대위는 사회주의 이론이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목적에서 탈선하면 오히려 인류를 요란하게 하는 괴물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⁵⁰⁾ 이 뿐만 아니라 유경상도 철저히 사회주의자의 삶을 산 예수에 대하여 이야기 하면서⁵¹⁾

46) 崔錫柱, 「反基督教運動과 우리의 主張」(三), 『基督申報』, 1931년 6월 10일자.

47) 『尹致昊 日記』, 1925년 10월 25일.

48) 申興雨, 「反基督教運動에 對하여」, 『青年』, 1925년 12월호, 3.

49) 李大偉, 「社會主義와 基督教思想」, 『青年』, 1923년 5월호, 9-11.

50) 李大偉, 「社會革命의 예수」, 『青年』, 1928년 6월호, 17쪽, 10-11.

51) 劉敬相, 「社會主義者 예수」, 『青年』, 1923년 7, 8월호, 32-37.

이대위의 사회주의 이해에 힘을 실어 주었고, 김응순은 성경에 기록된 사회주의적 성향을 열거함으로써 사회주의의 성서적 근거를 제시하였다.⁵²⁾

그리고 조선 기독교에 대한 자성을 촉구하는 개혁론자의 비판의 소리도 끊이지 않았는데, 신흥우는 자본계급이 교회를 이용하고 조종한다고 말하면서 교회는 무산계급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고⁵³⁾ 어떤 개혁적 기독교인은 구체적인 기독교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면서 조선 기독교가 개인을 위하여, 사회를 위하여 또한 세계를 위하여 조화롭게 살아 움직여 주기를 기대하기도 하였다.⁵⁴⁾ 한편 이대위는 「社會主義와 基督教의 歸着點은 엇더한가?」⁵⁵⁾라는 글에서 기독교와 사회주의의 상이점을 분석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이대위의 분석은 기독교가 차후에 전개할 기독교사회주의를 위한 자기반성과 개변의 계기로 삼았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3. 조선 기독교사회주의의 사상

조선의 기독교사회주의는 사회주의자들의 반기독교운동에 대한 하나의 대응으로 등장한 것이다.⁵⁶⁾ 그 용어적인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한 사람이 이대위이다. 그는 사회주의와 기독교의 귀착점을 찾던 중에 “社會主義는 基督教化로 基督教은 社會主義化가 되어 半島 新文化의 媒介物이 되리니 그 化合物의 名辭는 英國에서 用하는 基督教社會主義라 하던지 或 現今

52) 金應詢, 「社會問題와 基督教會」, 『青年』, 1927년 3월호, 154.

53) 申興雨, 「反基督教運動에 對하여」, 『青年』, 1925년 11월호, 5.

54) D. G. L. 生, 「社會改造와 基督教」, 『青年』, 1923년 4월호, 18.

55) 李大偉, 「社會主義와 基督教의 歸着點은 엇더한가?」(一), 『青年』, 1923년 8월호, 8-11.

56) 1920년대 중반에 등장한 조선의 기독교사회주의는 强者道德에 대한 부정과 영국의 킹슬레이, 모오리스, 러스킨 등이 제창한 基督教社會主義, 톨스토이의 博愛主義, 크로포드킨의 相互扶助論, 간디의 無抵抗主義와 가가와 도요히코의 그리스도적 ‘愛’에 기초한 神國運動論 등에 그 사상적 영향을 두고 있다. 「社會改造의 諸 思想」, 『東光』, 1931년 6월호, 77.

米國에서 用하는 社會的 基督教라 하던지 그 엇더하던지 半島式인 新化合物을 形成하여 進行하면 半島로 하여금 新的 半島를 成하며 世界로 하여금 新的 世界가 될지니”⁵⁷⁾라고 조선 기독교를 사회주의화하면서 ‘기독교사회주의’나 ‘사회적기독교’를 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후로 소수의 개혁적 기독교인들은 조선 기독교의 사회주의화를 위하여 조선 기독교사회주의를 실천해 나갔는데, 그 사상적 배경은 사회주의와는 분명히 구분되는 것이었다. 그 배경을 대체로 세 가지로 살펴 볼 수 있다.

첫 번째 사상은 바로 ‘애’(愛)의 실천이었다. 그 사상적 이론의 틀을 제공해 준 사람은 일본의 기독교사회주의자였던 가가와 도요히코(賀川豊彦)이다. 그의 「基督教社會主義論」⁵⁸⁾에 보면 기독교사회주의 사상의 핵심인 ‘애’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예수의 精神으로 보던지… 基督教은 愛를 基礎로 흔 큰 社會運動이다… 이는 永遠의 生命의 運動”⁵⁹⁾이라고 하였다. 가가와 도요히코와 더불어 톨스토이의 ‘박애주의’(博愛主義)⁶⁰⁾도 소개되어 ‘애’의 실천을 위한 기폭제가 되었다. 이에 채필근은 “예수敎會가 오늘날까지 慈善事業을 만히하여 貧民과 孤兒를 眷顧하며 殘疾者와 精神病든 사람들을 醫療하여 주기에 노력하였다. 特別히 救世軍과 같은 데는 社會事業을 만히 하고 있는 中이다… 예수의 宗教가 世界 人類의 靈魂을 罪惡에서 救出하여 天國으로 指導하는 것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目的을 成就함에는 이 世上에서 愛 精神을 發揮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애’의 실천을 위한 방향제시를 하였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平民的이어야 하겠스며, 四海同胞的이어야 하겠스며, 純愛로써 他人에게 臨하여야 할 것이다”⁶¹⁾라고 ‘애’의 실천을 위해 기독교인이 갖추어야 할 개혁적

57)李大偉, 「社會主義와 基督教의 歸着點은 엇더한가?」(二), 『青年』, 1923년 9월호, 12.

58)賀川豊彦, 「基督教社會主義論」, 赤誠學人 譯, 『基督申報』, 1927년 3월 9일~5월 25일자.

59)賀川豊彦, 「基督教社會主義論」(結), 赤誠學人 譯, 『基督申報』, 1927년 5월 25일자.

60)姜明錫, 「톨스토이와 칸디의 宗教思想에 對하여」, 『基督申報』, 1923년 4월 4일~18일자.

61)蔡弼近, 「社會主義와 基督教에 對한 一考察」(二), 『基督申報』, 1927년 11월 2일자.

태도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결국 ‘애’의 실천이란 조선 기독교사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개혁적 가치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둘째로 기독교사회주의를 실현하려는 개혁적 개혁자들은 ‘애’를 실천하기 위한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노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유경상은 “예수의 社會主義가 다른데 잊지 안코 勞働에 있다”고 말하면서 “일하지 않는 者는 먹지도 말라”고 한 것은 “그리스도敎의 主旨이며, 社會主義의 主動人物인 예수의 本意”⁶²⁾라고 소개하였다. 가가와 도요히코 역시 그의 『基督教社會主義論』에서 “예수 運動의 第一 原則은 生命價値 保存運動인데 그 生命의 活動은 勞働으로 出現함으로써 예수는 勞働 그 物件을 가장 神聖한 것이라 하사”⁶³⁾라고 노동을 예수 운동, 즉 기독교사회주의가 지향해야 할 가장 신성한 가치라고 말하였다. 더불어 개혁자들은 노동가치 문제에 가장 심각하게 부딪히던 자본주의를 비판하였는데, 특히 강명석은 자본주의에서의 노동자의 빈궁(貧窮)문제에 대하여 말하면서 자본가들은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면서 그 부담까지 노동자에게 가하는 기생충이 되었다고 심각하게 비판하였다.⁶⁴⁾ 결국 조선 기독교사회주의를 실현하려던 개변론적 개혁자들의 노동의 가치는 하나님의 ‘애’를 실천하기 위해 가장 신성시되었던 과정이었다. 이를 통해서만 다음 단계인 이상적 사회건설, 즉 신국운동(神國運動)을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로 조선 기독교사회주의자들이 펼치려고 하였던 이상적 사회 건설은 이 땅위에서의 하나님의 나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천국을 확장하며 실현하려던 운동이었다. 이를 위하여 빈번히 사용되었던 용어들이 ‘애의 사회’, ‘애의 정신’이었다. 결국 애의 정신으로, 애의 사회를 만들어가려는 것이 이상적 사회 건설의 핵심이었다. 그래서 이견춘은 계급적이었던 구세계를 평등의 세계로 바꾸기 위해서는 현세의 악

62) 劉敬相, 「社會主義者 예수」, 『青年』, 1923년 7. 8월호, 35-36.

63) 賀川豊彦, 「基督教社會主義論」(七), 赤誠學人 譯, 『基督申報』, 1927년 5월 4일자.

64) 姜明錫, 「貧窮과 寄生蟲」, 『青年』, 1928년 4월호, 42-48.

(惡)과 싸워 선(善)을 도우는 것이 애의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고, 신인합일(神人合一)의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⁶⁵⁾ 그리고 이건춘은 가가와 도요히코의 글⁶⁶⁾을 소개하면서 기독교사회주의가 지향하는 이상적 사회 건설의 기본원리가 애를 기초로 하는 사회임을 분명히 하였다.

V. 조선 기독교사회주의의 활동

1. 개혁적 활동 조직의 형태

기독교 원리에 입각한 기독교사회주의는 개인의 자발성과 극빈계급에 대한 박애정신에 기초하여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방법으로 노자(勞資)의 대립과 사회적 빈곤을 없애 나가자는 것으로 그 본질은 무산대중을 대상으로 한 인도주의이자 사회개량적 노자협동주의였다.⁶⁷⁾ 실례로 이대위는 사회혁명의 장식 대신 자본가들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고 빈부지우(貧富智愚)나 강약(強弱)의 구별 없이 상호간에 연락(連絡)과 단결할 것과 강자의 약자부조(弱者扶助)를 주장하였다.⁶⁸⁾ 그리고 호조(互助)의 정신으로 약탈경쟁의 수단을 대신할 경제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거론하였다. 이러한 경제제도의 개혁안으로 그는 노동자 이익분배제와 실업보험을 비롯한 노동보험, 노동소개제(勞働紹介制), 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조합의 단결권, 단체교섭권에 대한 법률의 보장,⁶⁹⁾ 대농제(大農制)의

65) 李健春, 「世界平和와 宗教의 職分」(二), 『青年』, 1923년 6월호, 19-20.

66) 賀川豊彦, 「愛의 社會」, 『青年』, 1926년 1월호, 19.

67) 金應詢, 「社會問題와 基督敎會」, 『青年』, 1927년 3월호, 153.

68) 이대위의 이러한 사상은 크로포드킨의 "相互扶助論"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 확실하다. 李大偉, 「今日 朝鮮의 呼聲」, 『青年』, 1924년 6월호, 3-4.

69) 李大偉, 「世界覺悟中 華 半島의 勞働問題」, 『青年』, 1923년 7, 8월호, 7-10; 「世界覺悟中 朝鮮의 勞工問題」, 『青年』, 1924년 8월호, 3.

공동농장 설치 또는 소농민들의 농업생산조합과 소농위원회의 조직⁷⁰⁾ 그리고 협동조합운동을 제시하였다. 그는 특히 협동조합운동에 주목했는데,⁷¹⁾ 이러한 주장들은 1925년 가가와 도요히코의 실천적인 기독교사회주의가 소개되면서 기독교 나름의 개혁적 사회 전망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전망을 실천하기 위한 개혁적 조직들이 이 시기에 형성되었다.⁷²⁾ 그 대표적인 조직으로는 흥업구락부, 수양동우회, 기독교신우회 등이 있다. 특히 흥업구락부와 수양동우회는 기독교 조직은 아니었지만 그 구성원들 대다수가 기독교인으로 구성되어 기독교적인 사회운동을 전개하였다.

1925년 3월 24일 이상재, 윤치호, 이갑성, 안재홍, 유성준, 장두현, 오화영, 유억겸, 구자옥, 박동완, 홍중숙 등 12명으로 조직한⁷³⁾ 흥업구락부(興業俱樂部)는 외교적인 부분에서도 두각을 나타냈을 뿐 아니라, 국내에서는 일제가 허용한 ‘합법적’ 공간 내에서 조선독립의 기반을 모색하며 사회주의 세력의 반기독교운동을 대응하는 차원에서 실력양성운동을 전개하였다.⁷⁴⁾ 이것은 전체 인구 80%의 농민들이 빈곤으로 죽게 생겼다는 인식의 결과였다.⁷⁵⁾ 1923년부터 준비하기 시작한 YMCA의 농촌사업은 북미 YMCA국제위원회의 인적·재정적 지원을 받으면서⁷⁶⁾ 19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는데, 그 중심에 흥업구락부가 있었다. 흥업구락부 조직의 핵심이자 YMCA 총무로 농촌사업을 이끌던 신흥우는 소작농의 생활과

70)李大偉, 「民衆化할 今日本과 農村改良問題」, 『青年』, 1924년 5월호, 8-9.

71)李大偉, 「最近 世界的覺 運動인 合作事業의 概觀」(一), 『青年』, 1924년 10월호, 3-4; 「最近 世界的覺 運動인 合作事業의 概觀」(二), 『青年』, 1924년 11월호, 3-4.

72) 개혁적 형태의 조선 기독교사회주의 운동에 대한 더 자세한 논의는 박정신의 *Protestantism and Politics in Korea*를 참조하되, 특히 142-157를 보라.

73) 장규식, 『일제하 한국기독교 민족주의 연구』(서울: 해안, 2001), 158-161.

74) 金權汀, 「1920・30年代 韓國基督教人의 民族運動研究」(崇實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00), 71-72.

75) 『東亞日報』, 1927년 6월 24일자.

76) 「農村에 天堂建設」, 『東亞日報』, 1925년 2월 14일자.

지위를 향상시켜 자작농으로 만드는 ‘자작농창제’(自作農創定)이 농촌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주장하였고,⁷⁷⁾ 그 대안으로 중소농민을 주축으로 하는 토지개혁과 협동조합론을 강조하였다.⁷⁸⁾ 이것은 일제의 일본인 위주, 대지주, 대자본 중심의 농업정책에 저항하며 중소농민의 생활경제를 안정시켜 민족자립경제의 수립을 지향하기 위한 것이었다.⁷⁹⁾

1924년 서북지방의 기독교 개혁세력인 안창호 계열인 동우구락부는 흥사단 출신 박영노의 제의로 수양동맹회와 합동을 결의하여 수양동우회(修養同友會)로 회명을 결정하고 개혁적 활동을 위한 대오를 구축하였다.⁸⁰⁾ ‘민족개조론’을 표방하면서도 대중적 활동은 하지 않고 주로 회원의 교양과 단체 이론 선전 등을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한 수양동우회는 1926년 6월에 창간한 기관지 『東光』을 통하여 우리 민족의 도덕적 결함에 대한 수양이 무엇보다도 필요함을 강조하였다.⁸¹⁾ 그리고 민족개조론·준비론을 기초로 하여 ‘신문화를 건설하고 이상적 사회를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민족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⁸²⁾

조병옥(趙炳玉), 정인과, 이용설 등의 주도로 1929년 5월 31일 창립한 기독교신우회(基督信友會)는 기독교주의와 민중화의 실체화 곧 기독교사회주의의 이념적 가치를 분명히 한 본격적인 개혁적 기독교혁신운동⁸³⁾이었다. 기독교신우회는 ①현 사회에 대한 의식과 각오를 절실히 가진 참된 신앙심이 있는 조선 기독교청년을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모으기에 힘쓸 것, ②

77) 申興雨, 「根本的 解決은 自作農創設에」, 『朝鮮之光』, 1929년 1월호, 61-62.

78) 申興雨, 「우리의 活路」, 『青年』, 1927년 10월호, 4-5.

79) 김권정, 「1920~30년대 신흥우의 기독교 민족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서울: 한국민족운동사 연구회, 1999)를 참조하라.

80) 조만식의 YMCA와는 달리 수양동우회는 그 자체가 기독교단체가 아니었지만, 100여명의 회원 대다수가 유력한 기독교인들이었던 관계로 그들이 관서지방 개혁적 기독교운동의 지도부 역할을 이끌어 왔다. 장규식, 뒷글, 140-143을 참조하라.

81) 社說, 「무엇보다도」, 『東光』, 1925년 6월호.

82) 金權汀, 뒷글, 74.

83) 장규식, 뒷글, 199-201.

그리스도의 주의와 정신을 생활에 실제화 하도록 힘쓸 것, ③청년 중에 교회에 대해 불평을 품고 나가는 이들을 붙들어 참 기독교인이 되도록 힘쓸 것 등을 목표로⁸⁴⁾ 민중의 생활개선과 행복에 걸림돌이 되는 사회악을 제거하고 기독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지각이 없는 기독교청년들을 의식화하는 데 사업의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기독교신우회는 교파주의·의식주의·속죄구령의 개인복음주의에 젖어 있는 기독교계 일반, 특히 기독교청년들에 대한 사회의식을 고취해 나갔고, 다른 한편으로는 반기독교운동의 공세에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에 대한 대책, 즉 사회주의에 맞서는 기독교사회주의 전선을 확보하였다.⁸⁵⁾

2. 개혁적 활동 영역

1920년대 들어 일제는 산미증산계획을 추진하였지만 증산된 쌀은 일본으로 유출되고 조선 농민은 잡곡을 더 많이 먹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일제의 요구에 따라 조선의 농업이 미단작(米單作)으로 이루어져 중소지주와 자작농은 토지를 잃게 되었고 소작농은 더 많은 소작료를 내게 되었다. 더욱이 1920년대 말기에는 농업공황까지 겹쳐 조선 농민의 대부분이 절대 빈곤의 상태에 빠져⁸⁶⁾ 농민 문제는 1920년대 조선 사회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개혁적 기독교사회주의자들은 이러한 농촌·농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애(愛)와 신성한 노동과 이상적 사회건설을 목적으로 농촌에 뛰어들었다. 특별히 YMCA와 YWCA 등 기독교 청년 학생단체와 이 단체들의 활동에 자극받은 장로교·감리교 등의 교회 조직을 통해 전개해 나갔다.

YMCA의 농촌운동은 1923년부터 시작되었다.⁸⁷⁾ YMCA의 구체적 농촌

84) 「宗敎團體의 新年抱負(基督信友會)」, 『基督申報』, 1930년 1월 1일자.

85) 장규식, 『잊을 수 없는 201-202』.

86) 강만길, 『고쳐 쓴 한국현대사』(서울: 창작과 비평사, 1994), 120-128.

사업은 첫째, 문맹퇴치, 둘째, 농사개량, 셋째, 협동정신 배양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추진한 구체적 농촌사업⁸⁸⁾은 농촌계몽, 농촌지도자 양성, 농촌문화 개발, 농촌협동조합, 농사개량과 부업장려, 농업상담, 농업지원 사업 등이었다. 한편 YWCA의 농촌사업은 1927년부터 착수하여 농촌부녀자들을 위한 교육활동을 벌이다가 1928년부터 농촌부를 신설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초기에는 YMCA와 연합으로 농촌사업을 시작했지만 1930년부터는 독자적으로 8개 마을에 YWCA 회원들이 들어가 계몽운동의 차원에서 농촌사업을 추진하였다. 1934년부터는 농촌 주부를 대상으로 한 <농촌부녀지도자수양소>를 열어 가정관리, 가정위생, 아동복지, 초등역사와 지리 등 12개의 과목을 가르쳤다.⁸⁹⁾ 이러한 YMCA와 YWCA의 활동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던 장로교는 1928년 총회기구 안에 ‘농촌부’를 설치하고 농촌사업 전문가 초빙, 농민잡지인 『農民生活』발행, 모범농촌 설치, 농학교 설립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농촌전도, 농촌위생, 농촌교풍, 농촌조합운동 등 구체적인 사업 착수하였다. 특히 1933년부터 농촌지도자 양성을 위해 숭실전문학교 농과와 연합으로 <고등농사학원>을 설치하고 2개월 과정의 농업전문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⁹⁰⁾

1926년 조선총독부의 통계에 의하면 세궁민(細窮民)이 총인구의 11%인 215만 명이었고 걸인이 1만 명이었다. 1931년 통계에 의하면 세궁민이 약 520만 명으로 총인구의 25%로 증가했고, 걸인의 수도 16만 명으로 급증하였다.⁹¹⁾ 한편 철도, 도로, 항만 등 식민지 운송체계가 갖추어지고 일제 자본이 진출하여 근대적 공장이 들어섬에 따라 조선인 노동자 수도 늘어났다. 1911년에 12,000여명이었던 공장 노동자 수가 1919년 42,000명

87) 전택부, 『한국기독교청년운동사』(서울: 범우사, 1994), 307-312.

88) 전택부, 『人間 申興雨』(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1), 190-191.

89) 이효재, 『한국 YWCA 반백년』(서울: 대한 YWCA연합회, 1976), 56-62.

90) 한규무, 『일제하 한국기독교 농촌운동: 1925~1937』(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7), 74-79.

91) 강만길, 『읽길』, 128.

으로 대폭 늘어났고,⁹²⁾ 1920년에는 46,200명, 1924년에는 63,487명, 1928년에는 87,864명으로 더 늘어남으로⁹³⁾ 도시빈민 문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심각한 도시빈민문제를 거론할 여유조차 없을 때 구세군은 그들을 향해 개변의 손길을 내밀었고 기독교사회주의를 실행하고 있었다.⁹⁴⁾ 1917년에 빈민을 위하여 국밥을 대접하고, 여자와 아동들을 위한 따뜻한 방과 식사를 준비하였으며, 신탄염가판매소를 개설하였다. 1918년에는 걸아양육원을 마련하였고, 1923년에는 동사자 구제를 위한 시설과 1925년에는 빈민구제소와 숙박소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⁹⁵⁾ 이런 형태의 도시 빈민을 위한 기독교사회주의가 구세군에 의해서 진행되는 동안 1926년에 연합공의회가 구세군과 협력하여 동사자를 위한 ‘구제의 집’을 마련하였고,⁹⁶⁾ 1936년에 12월에는 윤치호가 중심이 되어 <三同會>를 세워 동사자를 위한 숙박과 급식을 제공한 일도 있었다.⁹⁷⁾ 감리교에서도 1935년 평양에 <애린원>을 설립하여 탁아소와 여자숙박소를 운영하였고, 서울에 세워진 <태화여자관>에서도 구제사업을 병행하였었다.⁹⁸⁾

절제운동은 민중의 비극에 눈을 뜨게 하는 개혁적 기독교사회주의의 실천행동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가난하고 절망에 빠진 민중의 삶에 희망

92) 송찬섭·홍순권, 『한국사의 이해』(서울: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1998), 302-303.

93) 구로역사연구소, 『바로 보는 우리역사 2』(서울: 거름, 1990), 84쪽. <표> 연도별 공장 수, 자본금, 노동자 수를 참조했다.

94) 모오리스 이후에 영국에서 시작된 구세군은 이미 기독교사회주의가 체질화되어 있었다. 조선 기독교사회주의의 지평을 열었던 이대위도 「社會主義와 基督教思想」을 말하면서 구세군 창립자 윌리엄 부스의 기독교사회주의적 사상을 인용하기도 했었다.李大偉, 「社會主義와 基督教思想」, 『青年』, 1923년 5월호, 13.

95) 장형일, 『한국구세군사』(서울: 구세군대한본영, 1975년), 62쪽, 71쪽, 85쪽, 86쪽, 87쪽; 김준철, 『한국구세군 100년사』(서울: 구세군출판부, 2008), 141-144, 204-206쪽, 『救世新聞』, 1925년 2월호, 8월호; W. E. Twilley, "The Salvation Army," *The Christian Movement*, 1925, 521-522.

96) E. T. Rosenberger, "Social Service," *The Christian Movement*, 1926, 638.

97) 「三同會報告書」, 『青年』, 1937년 4월호, 13.

98) 閔庚培, 『韓國基督教社會運動史』, 264.

과 책임을 가지게 하는 거대한 민족양심운동이었다. 본격적인 절제운동은 3·1운동 이후에 전개되었는데 금주와 단연, 공창폐지를 중심으로 행해졌다. 그 목적은 가난한 조선을 살리자는 운동이었다. 절제운동에 관련하여 구세군의 역할은 그 역사나 범위에서 선구자적인 공헌을 해왔다.⁹⁹⁾ 구세군은 1908년 조선에 들어온 직후부터 금주·금연운동을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1910년에 기관지인 『구세신문』을 통해 술의 해악을 지적하기도 하였고,¹⁰⁰⁾ 1921년부터 1941년까지 매년 3월에 〈禁酒號〉를 특별 제작하여 배포하고 악대를 동원한 가두 금주선전을 실시하였다.¹⁰¹⁾

공창폐지와 관련한 절제운동은 1923년 미감리회 연회의 위촉을 받아 〈공창폐지위원회〉가 구성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¹⁰²⁾ 세브란스병원 안에 〈공창폐지기성회〉가 조직되어 사회운동을 전개시킨 것도 이 무렵이다.¹⁰³⁾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 교수였던 합격은 공창을 폐지할 구체적인 폐해들에 대하여 『基督申報』에 연재하기도 하였다.¹⁰⁴⁾

3. 개혁적 활동의 한계

조선 기독교사회주의의 개혁적 활동은 1930년대 중반부터 위축되면서 그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그 이유를 분석하면 다음 세 가지 이유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 1935년 기독교 내에서 개혁적 기독교사회주의의 행위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 일기 시작하였다. 1934년 무렵부터 YMCA 농촌사업의 중심 인물이었던 신흥우와 윤치호, 홍병선, 구자옥, 이대위 등의 반목¹⁰⁵⁾과

99) 윗글, 268.

100) 「단음흡이 가흡」, 『구세신문』, 1910년 10월호.

101) 장형일, 윗글, 74-75.

102) 『基督申報』, 1923년 12월 29일자.

103) 『基督申報』, 1923년 12월 26일자; 1924년 3월 19일자.

104) 합격, 「公娼廢止」, 『基督申報』, 1924년 4월 30일~6월 18일.

1935년 적극신앙단 사건을 둘러싼 기호파와 서북파의 대립으로 신홍우가 YMCA 총무직을 사임하면서 그 비판세력이 득세하였다. 김인서는 기독교 농촌운동이 그 지도 원리에 신학상 정리가 없음을 지적하면서 “교인이 할 일과 교회가 할 일이 다르다”고 비판하였고,¹⁰⁶⁾ 채정민은 “교회 뜰에 창고, 농촌강습회는 성단에서 증생 교미법 강좌”가 무례막급이라고 비판하였다.¹⁰⁷⁾ 한때 전형적인 기독교사회주의자였던 송창근도 그리스도의 목적은 “경제상태 개선이 아니라 구령”이라고 말하면서 사회봉사니, 사회복음이니 하는 것은 사회과학의 충동에서 나왔고 성서적인 근거가 없다고 비판하였으며,¹⁰⁸⁾ 김교신도 노동농민의 궁핍보다는 그들의 도덕적 불신, 나태(懶惰), 불평을 “가공가탄”(可恐可歎)이라고 성토했다.¹⁰⁹⁾

둘째, YMCA의 세계적 불황으로 국제위원회의 예산이 삭감되고,¹¹⁰⁾ 대부분의 농업전문가들이 본국으로 소환되어 극심한 물질·인적 자원의 부족을 겪어야 했다.¹¹¹⁾ 그리고 일제는 ‘농본주의’에 입각하여 지배체제를 안정시키려는 목적에서 1932년 7월부터 이른바 ‘농촌진흥운동’을 벌이기 시작하였는데, 그 내용이 YMCA 농촌사업과 비슷하였다.¹¹²⁾ 이에 일제는 YMCA 농촌사업을 ‘농어촌의 진흥과 자력갱생운동’으로 끌어들이려고 온갖 탄압을 자행하였다.¹¹³⁾

셋째, 조선 기독교사회주의의 모든 개혁의 실천적 형태들이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원인은 일제의 전시체제와 민족말살정책에

105) 『尹致昊日記』, 1934년 9월 10일자.

106) 金麟瑞, 『教會 할 일과 敎人 할 일이 다르니라』, 『信仰生活』, 1936년 7월호, 1.

107) 蔡廷敏, 『敎農運動의 可否』, 『信仰生活』, 1936년 6월호, 9.

108) 閔庚培, 未詳, 273-274.

109) 金敎臣, 『職人의 根性』, 『聖書朝鮮』, 1936년 6월호, 1.

110) 전택부, 『한국기독교청년운동사』, 370.

111) 장규식, 『1920~30년대 YMCA 농촌사업의 전개와 그 성격』, 『한국기독교와 역사』4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5), 253.

112) 未詳, 251-252.

113) 전택부, 未詳, 370-371.

따른 종교정책 때문이었다. 일제는 1931년 만주침략을 시작으로 1945년 패전하기까지 15년에 걸친 침략전쟁을 감행하였다. 이로 인해 식민지 조선은 대륙침략을 위한 병참기지로 재편되면서 소위 ‘황국신민화정책’에 따라 조선인의 정신생활까지도 통제하였다. 그리고 1937년에는 종교단체법안을 통과시켜 기독교에 대한 통제를 본격화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일제가 강점한 조선 땅에서 더 이상 개혁적 기독교사회주의 이념을 펼칠 방법이 없었다. 특히 농촌운동에 대해서는 일제가 1931년부터 경계하였었는데 1933년 신흥우가 총독부에 불러가서 농촌사업 중지요청을 받은 후¹¹⁴⁾ 1936년부터 침체가 나타나다가 1937년 10월에 농촌을 순회하던 것을 중지함으로 끝이 났고, 장로교의 농촌운동도 1938년 농우회 사건 전후로 배민수 등이 피검되면서 끝이 나게 났다. 그리고 절제운동도 일제가 불온으로 보고 보안법위반으로 기소하는 등의 단속으로 중지되었고,¹¹⁵⁾ 도시빈민운동은 일제의 전시정책으로 인해 조선교회가 일본교회에 예속되어 활동 할 수 없게 됨으로 일제시대 조선 기독교사회주의는 사실상 종언을 고하게 되었다.

VI. 나가는 말

한국 기독교는 개변론적 변혁의 역사이다. 조선시대 말엽 급변하는 사회변동과 물밀듯이 밀려드는 근대화의 물결 속에서 조용히 이 땅을 밝은 복음의 전사들은 처음부터 이 땅의 아픔과 함께 하면서 그 문제들을 개혁의 도구인 병원과 학교를 통해서 풀어 나갔다. 특히 일제가 이 땅을 강점하자 짧은 기간 동안 개혁화된 기독교 세력들은 일제의 대응세력으로

114) 전택부, 『人間 申興雨』, 220.

115) 閔庚培, 윗글, 444-445쪽.

등장하였고, 수탈당하는 민족의 희망으로, 억눌린 민중의 도우미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3·1 운동이 좌절된 후에는 기독교가 반개혁화 하면서 민중의 기대를 저버리기도 하였었지만 사회주의의 반기독교운동으로 도전받은 소수의 개혁세력들이 다시 전열을 재정비하고 새로운 개혁 운동을 조직하고 점검한 후 기독교사회주의를 형성하고 실천함으로써 일제 강점 중·후기 가장 어려운 식민시절에 다시 한 번 우리 민족의 등불이 되었다. 비록 기독교사회주의가 보수적 기독교계의 비판과 자원의 부족과 일제의 정책적인 의도로 좌절되기는 했지만 이러한 개혁적 기독교사회주의 전통은 해방 후에도 면면히 계승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사회는 보수에 의하여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진보에 의해 방향을 잡고 변화되어져 간다. 변화의 정점에는 항상 개혁하려는 사람들의 수고와 몸부림이 있었다. 우리의 근·현대사가 그것을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다.

라인홀드 니버(Reinhold Niebuhr)는 “인간생활의 협력적이고 도덕적인 측면이거나 사회 투쟁의 필연성이거나 간에 그것이 최대의 의의를 가지느냐 못 가지느냐 하는 것은 시대와 환경에 달려 있다.”¹¹⁶⁾고 하였다. 시대의 환경이 인간의 노력을 결정한다는 말이다. 이와 같이 한국기독교가 한국사회의 근대적 변동을 촉발하고 추진한 그 어느 사회 세력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시대, 그 환경에 기독교적 상징과 신념과 조직의 특성으로 응전했기 때문이다.¹¹⁷⁾ 이것이 바로 조선 기독교사회주의를 촉발할 수 있었던 기독교의 개혁적인 힘이다. 오늘의 한국기독교에도 이 힘이 필요하다. 특히 일제시대 때 사회주의자들과는 양상이 다른 반기독교 세력들이 인터넷을 누비며 기독교를 악평하고 반대하고 음해하고 있는 실정에서 더욱 그렇다. 그들이 비록 물리적인 폭력은 휘두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국기독교는 저항할 명분이 없어서 이미 만신창이

116) Reinhold Niebuhr,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이병섭 역 (서울: 현대사상사, 1981), 281.

117) 박영신, 「한국 근대 사회변동과 기독교」, 『기독교사상』, 1984년 7월호, 132.

가 되어버렸다. 이럴 때 한국 사회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개혁적인 기독교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새로운 한국기독교사회주의를 위한 겸손한 헌신이 요구된다.

〈국문 초록〉

1920-1930년대 조선 기독교사회주의 연구

조선에 들어 온 개신교 선교사들은 ‘병원과 학교’라는 근대의 도구를 가지고 선교하여 개혁적 기독교세력을 형성해 나갔다. 이렇게 개혁화된 최초의 조선 기독교인들은 조선 사회의 희망으로 떠올랐고, 일제가 조선을 강점하던 시기에는 가장 강력한 반일세력으로 급부상하였으며 1919년 3·1운동의 주도세력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3·1운동 좌절 이후 반개혁적으로 급선회한 조선 기독교는 사회주의자들의 반종교 대상으로 지목되어 극렬한 반기독교운동에 휘말리게 된다.

사회주의자들의 조직적인 반기독교운동에 대하여, 그들의 비판을 부분적으로 수용하고 개선방향을 찾기 위해 교회 밖에서 사회운동과 민족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던 기독교인들이 있었다. 바로 이들이 반개혁적으로 흘러버린 다수의 기독교인들에 비해 소수에 불과한 개혁주의자들이다.

이들의 적극적인 기독교적 개변의 재생이 1920-1930년대 ‘조선 기독교 사회주의’라는 새로운 물결을 형성하였고, 짧은 기간이지만 중기(中期) 일제 강점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조선 민중의 희망으로 등장하였다.

조선 기독교사회주의를 형성한 사상적 배경은 ‘애(愛)의 실천’과 ‘노동의 신성한 가치’와 ‘이상적 사회건설’에 두고 있다. 특히 ‘애’는 목적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사회주의자들의 폭력에 대비하는 가장 중요한 기독교사회주의의 실천의 기반이 되었고, 이것은 조선 기독교사회주의의 실제적 행위를 가능케 한 또 다른 사상인 노동의 신성한 가치와 이상적 사회건설을 설명자들의 있는 원인이 된다.

Key words : 개혁주의자, 기독교사회주의, 애의 실천, 노동의 신성한 가치, 이상적 사회건설

〈Abstract〉

A Study on the 'Joseon Christian Socialism' in 1920-1930's

Kang, Jong-Kwon

Protestant Missionaries, who came to Joseon, were making their Christian conversional groups with the modern tools of 'hospital and school'. The first Christian converts emerged as the hope of the Joseon society, and they possibly became the powerful Anti-Japanese group and the main power of the 3·1 movement of 1919 under the rule of Japanese imperialism. But Joseon Christianity, that suddenly became anti-conversional after the 3·1 movement failed, became the object of anti-religion movement of socialists and it were tangled with the violent anti-Christian movement.

There were some ministers and Christians, who had worked outside of church for social and nationalist movement came to accept the socialist argument in order to improve this anti-Christian movement. These were minority conversionists in contrast to the majority of anti-conversional Christians.

The restoration of their active Christian conversionist position formed the new wave of 'Joseon Christian socialism' from the 1920's to the 1930's, and became the hope of Joseon people in the middle

period under the rule of Japanese imperialism even though it was short.

The ideological background of Joseon Christian socialism, was based on “the practice of ‘love,’” “the sacred value of labor,” and “the construction of ideal society.” Especially, the ‘love’, became the most important foundation of practice of Christian socialism, by contrast with the violence of the socialists by fair means or foul. And it could explain the other ideologies: the ‘sacred value of labor’ and the ‘construction of ideal society,’ which brought about the real acts of ‘Joseon Christian socialism’.

Key words : conversionist, Christian socialism, the practice of love, the sacred value of labor, the construction of ideal society

〈참고문헌〉

1. 1차 자료

- 『開闢』
『東光』
『聖書朝鮮』
『青年』
『구세신문』
『基督申報』
『뉴스 앤 조이』
『大韓每日申報』
『東亞日報』
『新生活』
『信仰生活』
『尹致昊 日記』
『朝鮮之光』.
『한국교회 100년 종합조사연구』 한국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 1982.
『韓國獨立運動史』(1권), 國史編纂委員會, 1968.
Editorial Comment. *The Korea Review*. Vol. 6(1906), July.
Rosenberger, E. T. "Social Service." *The Christian Movement*. 1926.
The Japanese in the North. *The Korea Review*. Vol. 6(1906). August.
Twilley, W. E. "The Salvation Army." *The Christian Movement*. 1925.

2. 한글저서

- 강만길. 『고쳐 쓴 한국현대사』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94.
구로역사연구소. 『바로 보는 우리 역사 2』 서울: 거름, 1990.
김병서. 『한국사회와 개신교』 서울: 한울 아카데미, 1995.
김준철. 『한국구세군 100년사』 서울: 구세군출판부, 2008.
노치준. 『일제하 한국기독교 민족운동 연구』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5.
閔庚培. 『韓國基督教 社會運動史 1885-1945』 서울: 大韓基督教出版社, 1987.

- 박영신. 『역사와 사회변동』 서울: 한국사회학연구소, 1995.
- 朴殷植. 『韓國通史』 하와이: 권업동맹단, 1917.
- 박정신. 『근대한국과 기독교』 서울: 민영사, 1997.
- 송찬섭, 홍순권 공저. 『한국사의 이해』 서울: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1998.
- 신용하 외 4인. 『일제강점기하의 사회와 사상』 서울: 신원문화사, 1991.
- 신재호. 『단재 신재호 전집』 6권. 천안: 독립기념관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8.
- 양춘 외. 『사회학 개론』 서울: 진성사, 1986.
- 이효재. 『한국 YWCA 반백년』 서울: 대한 YWCA연합회, 1976.
- 장규식. 『일제하 한국기독교 민족주의 연구』 서울: 혜안, 2001.
- 장형일. 『한국구세군사』 서울: 구세군대한본영, 1975.
- 전택부. 『人間 申興雨』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1.
- _____. 『한국기독교청년회운동사』 서울: 정음사, 1978.
- 韓國史敎材編纂委員會. 『韓國史大要』 서울: 淑明女子大學校出版部, 1984.
- 한규무. 『일제하 한국기독교 농촌운동: 1925~1937』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7.

3. 번역서

- Griffis, W. E. 『은자의 나라 한국』 신복룡 역. 서울: 탐구당, 1976.
- Niebuhr, Reinhold.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이병섭 역. 서울: 현대사상사, 1981.
- Niebuhr, H. Richard. 『그리스도와 文化』 金在俊 역. 서울: 大韓基督教書會, 1977.
- Wales, Nym and Kim San. 『아리랑』 조우화 역. 서울: 동녘, 2002.

4. 논문

- 金權汀. 「1920~30년대 신흥우의 기독교민족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서울: 한국민족운동사연구회, 1999.
- _____. 「1920·30年代 韓國基督教人의 民族運動 研究」, 崇實大學校大學院 史學科 博士學位論文, 2000.
- 박영신. 「기독교와 사회발전」, 『기독교사상』. 1984년 5월호.
- _____. 「한국 근대 사회변동과 기독교」, 『기독교사상』 1984년 7월호.

장규식, 「1920~30년대 YMCA 농촌사업의 전개와 그 성격」, 『한국기독교와 역사』4,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5.

5. 영어저서

Horton, Paul B. and Hunt Chester L. *Sociology*. New York: McGraw-Hill, 1984.

Maurice, F. D. *Reconstructing Christian Ethics*. Kentuc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5.

Niebuhr, H. Richard. *Christ and Culture*. New York: Harper & Brother, 1956.

Park, Chung Shin. *Protestantism and Politics in Korea*, Seattle and London: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2003.

Reardon, Bernard M. G. *From Coleridge to Gore*, London and New York: Longman, 1971.